

출판산업의 미래전망과 발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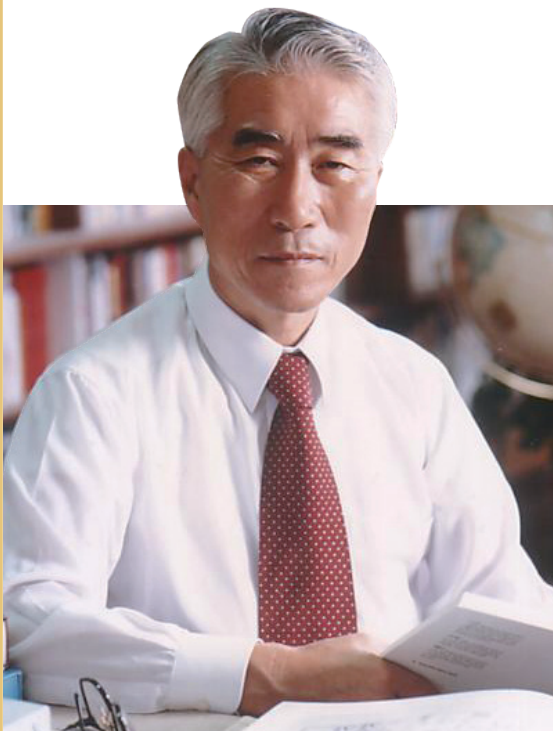
매해 출판계가 어렵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작금의 출판산업이 여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입지가 불안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우리의 변화된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콘텐츠가 '책'을 통해 재생산된 다양한 텍스트의 결과물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책'은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콘텐츠이다. 인류역사는 '책'과 '출판'의 역사를 통해 성장 발전해 왔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책의 역사'는 인류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볼거리들, 특히 연극,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무용, 게임 등 여러 문화산업의 콘텐츠가 결국 '책'의 핵심 요소인 스토리로 인해 재가공 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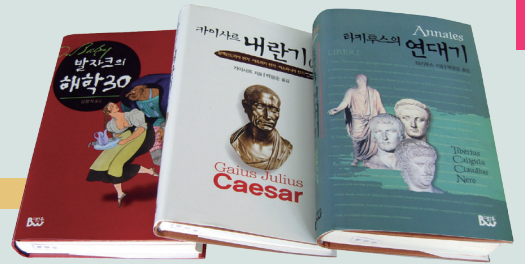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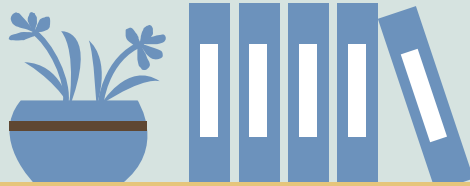
현재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의 콘텐츠는 우리만의 사상과 문화를 담은 한국의 텍스트이다. 책을 통해 확장된 사고의 깊이는 또 하나의 장르로 이동해 책의 줄거리, 음악의 가사,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문화콘텐츠로 재가공 돼 '한류'라는 하나의 문화현상을 만들었다. 이미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호기심의 발로로 책을 읽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나 나라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서(良書)의 출간과 보급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튼실히 가꾸는 중요한 자양분임에 틀림없다.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오디오 책과 전자책 등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종이책의 위기를 만드는 부정적



인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종이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종이책이 영상매체와 인터넷 등에 쏠린 독자들의 관심을 다시 책으로 끌어들이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출판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최근 출판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출판사별로 발행 종수와 부수를 최적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종이책과 전자책, 웹 콘텐츠를 아우르는 생산 시스템 구축에 신경 쓰고 있다. 그밖에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출판의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기획력을 갖춘 셀프 출판, 독립출판 등 새로운 출판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출판은 단순히 종이책 출판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게



출판의 외형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기관, 단체 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출판산업이 인류역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여타 문화산업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조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데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있었던 '201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구현하는 데 책은 소중한 인프라이다"며, "출판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출판산업을 살리는 길은 정부의 적극적인 출판지원 정책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굳이 출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도서정가제 확립, 다양한 독서지원 정책 추진 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출판인들이 무엇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 왔는지 조금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다면, 출판의 미래는 한결 밝아질 것이다. 출판은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이끄는 중요한 매체이다. 책을 통해 가공된 지식과 정보가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는 복제, 전파, 유통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므로 출판의 사회적 기능은 지대하다. 아울러 이 같은 출판의 사회적 기능은 출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발휘되는 순기능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출판산업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종이책은 사라지고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출판산업의 미래"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종이책의 텍스트를 통해 생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출판산업의 미래는 종이책과 인터랙티브 콘텐츠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상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모든 창작물들은 책을 통해 얻는 지식과 지혜로 인해 창출되며, 결국 '책'이 그 성장 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책은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창조산업을 이끄는 1차 콘텐츠인 책이 담아내는 스토리는 아날로그 출판(종이책)이든 디지털 출판(전자책)이든 출판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명과 과학 속에 발전을 거듭해온 인류의 역사이자 출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범우사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형득**